

# 가정학 전공자의 전공에 관한 의견

- 충북 지역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

## The Home Economics Major Students' View on Their Major

김 인 숙\* · 어 종 선\*\* · 이 미 숙\*\*

서원대학교 가정교육과

Kim, In Sook\* · Eo, Jong Seon\*\* · Lee, Mee Soo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eowon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ome directions for students' future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Juniors and Seniors majoring in Home Economics were selected from 4 Universities in Chungbuk Province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Most of respondents were defined the H.E. as the academic subject, and 50.2% of them regarded H.E. as a necessary subject regardless of whether it is their major or not.
2. Though the most general motives of choosing H.E. as their major were recommendation of their parents/neighbors or their school record, they are satisfied with their major.
3. The strongest reason majoring in H.E. was that it is helpful to living, and some students didn't show any interest because H.E. was not considered as a realistic study.
4. Many respondents answered that male students have to learn H.E., and thought that H.E. Education is much influential to one's living.
5. 59.6% of respondents replied that cultural studies related to H.E. are opened at the universities, and 90.6% of them thought subjects related to H.E. should be opened as cultural studies.
6. After graduation, 48.3% of respondents will choose their jobs related to their major, and they prefer to be a teacher, a dietitian and a fashion designer in its order.
7. 44.3% of respondents thought that H.E. is neglected and 50.7% of them answered that the research by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is necessary.
8. Many students majoring in H.E. took an optimistic view about H.E.'s future as a study.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인간은 누구나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한다. 그러기 위해

서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의 결과는 인생의 장인 사회에서 좀더 보람있고 뜻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진로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또한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은 교육의 질과 내용을 스스로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이 수정 외, 1994). 우리나라에서 가정학

이 학교 교육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개화 사상이 전반적으로 확산된 19세기 말이다. 미국인 선교사에 의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시작된 가정과 교육은 그동안 여성교육에 주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여 생활개선에 계몽적인 활동을 추구해 오게 되었다(이 정연, 1995).

가정과 교육의 주제가 되는 가정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정과 가족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고, 가정 생활과 가장 밀접한 학문으로 모든 기초 과학을 응용해서 가족 구성원 개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적 특성이 있다. 가정과 교육이 초창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여성을 그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이와 같은 가정학의 학문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제 6차 교육 과정의 개편(1995년)으로 남자 중학생들에게 가정과목을 필수로 부과하게 됨으로써 여성 교양 교육적 성격에서 생활 교양 교육적 성격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 뿐 아니라 대학이 설립되고, 석·박사 과정이 증설되면서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가정학의 전문성이 강화(이 정연, 1995) 되었고, 오늘날의 가정학은 사회구성 단위의 중심부이자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가정을 그 연구 대상의 핵심 주제로 다루면서도 대다수의 가정학자들이 가정의 안녕을 위한 사회적 책임 의식보다는 개인의 경력이나 각 영역의 전문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김 영희, 1996) 실정이다. 여기서 가정학과 직업과의 관련성이 부각된다고 하겠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정과 교육은 직업 교육과 함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직업 교육은 주로 가정학 관련 분야의 이론을 근거로 하며 의·식·주생활, 소비생활과 관련되는 생산 및 서비스 산업분야에 종사할 직업인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장명희 외, 1995).

한편 정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1995년에 48.3%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조선일보, 1997.1.28일자),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의 변화를 보면 25에서 39세 사이의 연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대하고 있다(이 수정 외, 1994). 이 연령층은 여성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추세는 산업화가

고도화될수록 점차적으로 보편화되리라 여겨지는데,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각각 57.2%, 50.9%로 절반을 넘었으며,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수도 증가 추세로 총 가구 중 16.8%에 이른다(조선일보, 1997.1.28일자).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 근로자의 임금 역시 아직은 남성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지난 93년 56.7%, 94년 58.4%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매일 경제신문, 1996.11.22일자)에 있어 여성의 직업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의 증가 추세와 여성 중심의 교양 교육적 성격이 강하던 가정과 교육의 직업 교육과의 연계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그동안 가정 생활과 관련되는 내용을 주로 다루던 가정학에서 점차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직업 교육적 역할을 고려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대학 교육의 이념 역시 시대 변천에 따라 '좋은 직업인', '교양 있는 인간' 육성으로 변모하면서 현대의 대학 교육은 대중을 위한 교육으로, 지식 체계의 양적 증대에 따라 대학은 보다 기술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이 춘계, 1990)함으로써 앞으로 전공 분야로서의 가정학 및 대학에서의 가정과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발전 방향 모색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정학에 대해 고유한 이론이 없고 경험적 연구에만 치중하여 학문으로서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이 정연, 1994). 실제로 가정학을 전공하는 학생,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학 관련 분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자신의 전공 학문인 가정학에 대한 정체성의 부족이다. 다시 말하면 가정학의 고유성은 무엇이며,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연구나 교육을 할지라도 가정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다른 학문과 차별화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돈된 정체감은 교수들의 경우 자기 자신을 가정학자라고 인식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인접 학문의 유사한 전공자로서 행동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가정학도'로 소개하기를 꺼리게 하는(이 기춘 외, 1990)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정체성의 부족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전문인으로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 직업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에도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산업화는 도시화와 핵 가족화를 초래했고 여성의 취업이 점차 증가하면서 종전에 주부들이 가정에서 손수 하던 조리, 재봉, 세탁, 육아 등의 일들이 사회로 옮겨져 산업화되고 취업 여성의 자녀 양육 문제 해결을 위한 탁아 기관 등의 확충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대상 서비스 산업의 육성 요구, 소득 증대에 따른 경제적 여유로 레저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의 심미적 욕구 등이 관련 산업의 사회적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들 관련 산업은 가정계 직업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농업, 공업, 상업 계열 등 타 계열의 직업 교육 영역에서는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 분야의 직업인 육성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해(장명희 외, 1992에서 재인용) 볼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2000년대 유망 직종을 보면 대개 지식, 정보를 다루거나 국제화, 여가 증시의 추세를 반영하는 전문직의 큰 흐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학 계열 전공자들도 사회의 요구에 따라 분야별로 큰 관심을 가지고 기업계에 진출하고 있어 아동·가족관련 분야, 의 환경 분야, 식 생활 분야, 주 생활 분야 등에서 전문 분야를 확보하고 있는데, 가정학 계열 공동 진로로서 중등 학교 교사, 생활 지도사, 생활 연구사 등(정 영숙 외, 1994)을 들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가정학 및 가정과 교육은 예전에 중점을 두었던 교양 교육으로서 뿐 아니라 직업 교육 성격의 강화가 필요하며, 사회 변화가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스스로도 당당한 가정학도로서, 그리고 졸업 후에 가정학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직업인으로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처럼 사회와 상황의 변화에 따른 문제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의 가정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정학에 대한 시각은 과연 어떠한지 알아보려는 시도가 아직까지 없었던 점은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대학에서 가정

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전공에 대한 견해와 전망, 그리고 졸업 후 자신의 전공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알아봄으로써 가정학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전공자의 직업 선택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서 앞으로 가정과 교육의 나아갈 방향 모색 시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 2. 연구내용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대학에서 가정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구성은 어떠한가? 전공 영역인 가정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가정학 전공자의 가정학 전공 동기는 무엇이며 만족도 및 흥미 정도는 어떠한가? 셋째, 남학생의 가정과 교육 이수율과 교양 과목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넷째, 가정학 전공자의 진로는 어떠한가? 다섯째, 전공 영역인 가정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연구범위를 국한한 것은 본 연구가 탐색적 시도라는 한계에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가정학'은 아동·가족 관련 분야, 의 생활 분야, 식 생활 분야, 주 생활 분야와 가정 관리 및 소비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전공자'는 4년제 대학에서 가정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기간

연구 대상은 충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서원 대학교, 충북 대학교, 건국 대학교 충주 캠퍼스, 한국 교원 대학교에서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가정교육과<sup>1)</sup>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1996년 9월 2일부터 9

1) 조사대상에서 가정학 관련학과 중 의류학과가 제외되었는데, 충북지역 4년제 대학교 중에는 서원대학교에만 의류직물학과가 있기 때문이다.

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4개 대학의 대상학과 3, 4학년 245명에게 질문지를 직접 배부한 다음, 203부를 회수(회수율 82.8%)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질문지 배부 및 회수상황은 표 1과 같다.

## 2. 조사 도구 및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관련 문헌을 기초로 해서 가정학 전공자들의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 내용에는 가정학의 본질, 가정학 전공 동기 및 만족도/흥미정도, 남학생의 가정과 교육 이수 및 가정학 관련 교양 과목 개설의 필요성, 가정학 전공자의 진로 및 가정학의 발전 방향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내용은 연구자가 지도 학생들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집약되었고, 설문지에 사용한 세부 문항 작성은 문헌을 참고하거나 관련 교수와 관련 학생들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였으며, 서원대학교 가정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한 다음, 문항 수정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전공 학과별 차이를 알기 위하여  $\chi^2$  검정과 F 검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가정학 전공자의 구성 및 인식 정도

#### 1) 가정학 관련학과의 구성원

가정학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남녀 비율을 알아본 결과 가정관리학과와 가정교육과는 100% 여학생으로만, 식품영양학과는 남학생 25%와 여학생 75%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총 203명 중 여학생 92.1%, 남학생 7.9%로 현재 가정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대체로 여학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정학은 여학생만의 전유 영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 일반의 이해와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가정학에 대한 정의 및 인식정도

가정학 전공 학생들로 하여금 가정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한 결과(표 2), '가정 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습득하는 학문'이라고 한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고, '의식주에 관한 과학적 원리를 습득하는 학문'이 36%로 그 다음이었으며, 더 나아가 '건전한 생활 이념과 인간 개발에 대한 것을 습득하는 학문'이라는 정의도 14.8%나 되었다. 그런데 가정학에 대해 문의한인 일반인들이 흔히 말하는 '조리, 수예, 육아 등 가정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

<표 1> 질문지 배부 및 회수 상황

구분	서원대학교	충북대학교	교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계
가정관리학과	29(40)	-	-	35(40)	64(80)
식품영양학과	49(60)	15(20)	-	-	64(80)
가정교육과	64(70)	-	11(15)	-	75(85)
계	142(70)	15(20)	11(15)	35(40)	203(245)

\* 회수분(배부분)임.

<표 2> 가정학의 정의

구분	조리, 수예, 육아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술 습득학문	의식주에 관한 과학적 원리 습득학문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능력 습득학문	건전한 생활이념과 인간개발에 대한 것 습득학문	기타	계
N(%)	7(3.4)	73(36.0)	92(45.3)	30(14.8)	1(0.5)	203(100.0)

득하는 학문'이라는 응답은 3.4%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가정학 전공자들이 학문적 위치 면에서 긍정적으로 가정학을 정의한 점에서 가정학의 세부 내용을 알리려는 노력이 따른다면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감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는 가정학 전공자들의 전공에 대한 정체성 형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변의 타학문 전공자들이 가정학을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본 결과(표 3), '단순히 가정생활 기술만을 익히는 학문'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5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가정생활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다루는 학문' 29.1%, '여성에게만 필요한 학문'이라는 응답은 14.8%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응답은 전공자의 학과별로 차이가 인정되어 가정관리학과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단순히 가정 생활 기술만을 익히는 학문'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경우 '가정 생활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평가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표 3> 가정학에 대한 타전공자들의 평가  
N(%)

구 분	가정관 리학과	식품영 양학과	가정교 육과	계
여성에게만 필요한 학문	14 (22.6)	6 (11.5)	8 (10.7)	28 (14.8)
단순히 가정생활기술만 익히는 학문	40 (64.5)	10 (19.2)	56 (74.7)	106 (56.1)
가정생활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다루는 학문	8 (12.9)	36 (69.2)	11 (14.7)	55 (29.1)
계	62 (100.0)	52 (100.0)	75 (100.0)	189 (100.0)

$\chi^2 = 61.5039^{***}$  df = 4 \*\*\* p<0.01

이번에는 가정학 전공자 자신의 가정학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였는데(표 4), 조사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50.2%의 응답자가 '전공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학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학문 체계가 확고하지 않은 학문'이라는 인식도 23.2%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전공자 학과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가정관리학과 학생들에게서 '학문 체계가 확고하지 않은 학문'과 '사명

감과 자신감을 갖기 어려운 학문'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타 과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 가정학 전공자가 인식하는 가정학

N(%)				
구 분	가정관 리학과	식품영 양학과	가정교 육과	계
전공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학문	24 (37.5)	36 (56.3)	42 (56.0)	102 (50.2)
학문체계가 확고하지 않은 학문	20 (31.3)	12 (18.8)	15 (20.0)	47 (23.2)
사명감과 자신감을 갖기 어려운 학문	17 (26.6)	9 (14.1)	10 (13.3)	36 (17.7)
기 타	3 (4.7)	7 (10.9)	8 (10.7)	18 (8.9)
계	64 (100.0)	64 (100.0)	75 (100.0)	203 (100.0)

$\chi^2 = 11.6553^*$  df = 6 \* p<0.10

## 2. 가정학 전공 동기 및 만족/흥미도

### 1) 가정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와 만족도

가정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를 보면(표 5), '평소 가정학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장래 직업과 관련'해서와 같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 39.5%에 비해 '부모님이나 주위의 권유 또는 성적 때문'과 같이 타의에 의한 것이 50.7%로 더 많은 비율을 보였는데, 전공 학과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타의에 의한 이유를 다시 세분해서 살펴본 결과, 단순히 '성적에 맞춰' 가정학을 전공하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9.4%로 나타났다.

<표 5> 가정학 전공 동기

N(%)				
구 분	가정관 리학과	식품영 양학과	가정교 육과	계
부모님이나 주위의 권유·성적 때문에	37 (57.8)	26 (40.6)	40 (53.3)	103 (50.7)
평소 가정학에 관심이 있어서	11 (17.2)	12 (18.8)	11 (14.7)	34 (16.7)
장래희망직업과 관련되므로	4(6.3)	11 (17.2)	11 (14.7)	26 (12.8)
기 타	12 (18.8)	15 (23.4)	13 (17.3)	40 (19.7)
계	64 (100.0)	64 (100.0)	75 (100.0)	203 (100.0)

$\chi^2 = 6.3813^{NS}$  df = 6 <sup>NS</sup> P>0.10

그리고 '상당히 만족'을 5점으로 하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여 전공 만족도를 살펴보았는데(표 6), '보통'인 3점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표 6> 전공 만족도

구 분	Mean	SD	F 값
가정관리학과	3.50	0.97	0.7730 <sup>NS</sup>
식품영양학과	3.3	0.96	
가정교육과	3.32	0.88	
전 체	3.38	0.93	

<sup>NS</sup> P > 0.10

### 2) 가정학에 대한 흥미 정도

전공자들이 가정학에 대해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매우 흥미'를 5점으로 하고, '전혀 흥미없음'을 1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표 7), 응답자들은 전공에 대해 약간 흥미있는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학과별 유의차는 없었고, 표 6의 전공만족도와 비교할 때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7> 가정학에 대한 흥미 정도

구 분	Mean	SD	F 값
가정관리학과	3.48	1.00	0.1383 <sup>NS</sup>
식품영양학과	3.31	0.99	
가정교육과	3.55	0.81	
전 체	3.45	0.93	

<sup>NS</sup> P > 0.10

이 중 '거의 흥미없음'과 '전혀 흥미없음'이라고 응답한 학생(22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학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므로'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기에 소질이 없어서'와 '실생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라는 응답이 각각 2명으로 나타났다. 다시 가정학에 대해 '매우 흥미'와 '약간 흥미'에 응답한 학생(94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실생활에 도움이 되므로'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64.9%로 나타나 가정학의 실용성이 흥미를 갖게 하는 주된 이유가 되며, 가정학의 과학성에 해당하는 '진정한 학문이므로'라고 응답한 학생은 8.5%에 불과하여 이러한 결과로부터 가정학의 학문으로서의 위치 정립을 위한 노력이 긴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

다.

### 3) 흥미있는 가정학 분야

이번에는 가정학 전공자들이 흥미있게 생각하는 분야<sup>2)</sup>를 본 결과(표 8), 전체적으로는 실내 디자인, 식품 영양, 아동의 순이었다. 학과별로 보면 가정관리학과는 아동, 실내 디자인, 의상 디자인 순이었고, 식품영양학과는 식품 영양과 실내 디자인에 두드러진 흥미를, 가정교육과는 아동, 실내 디자인, 식품 조리의 순으로 흥미를 보였다. 특히 식품영양학과와의 경우에는 전공에의 전반적인 흥미도는 그다지 높지 않으면서(표 7) 전공 세부 분야인 식품영양에의 흥미가 높게 나타난 점이 다소 특이하였다.

<표 8> 가정학 중 흥미있는 분야

구 분	N(%)			
	가정관리 학과	식품영양 학과	가정교육 과	계
식품 영양	7(10.9)	27(42.2)	6(8.0)	40(19.2)
식품 조리	3(4.7)	2(3.1)	12(16.0)	17(8.4)
아 동	14(21.9)	5(7.8)	16(21.3)	35(17.2)
가족 관계	6(9.4)	3(4.7)	7(9.3)	16(7.9)
가정 관리	2(3.1)	0(0.0)	3(4.0)	5(2.5)
소비자	4(6.3)	1(1.6)	0(0.0)	5(2.5)
주 생활	2(3.1)	0(0.0)	2(2.7)	4(2.0)
실내디자인	12(18.8)	17(26.6)	15(20.0)	44(21.7)
의상디자인	11(17.2)	6(9.4)	10(13.3)	27(13.3)
의류 직물	2(3.1)	1(1.6)	1(1.3)	4(2.0)
복식사	0(0.0)	0(0.0)	0(0.0)	0(0.0)
가정 교육	0(0.0)	1(1.6)	2(2.7)	3(1.5)
기 타	1(1.6)	1(1.6)	1(1.3)	3(1.5)
계	64(100.0)	64(100.0)	75(100.0)	203(100.0)

## 3. 교양 과목으로서의 가정과 교육에 관한 의견

### 1) 남학생의 가정과 교육 이수 필요성

중학교에서 가정과 교육이 성별 구분없이 모두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정학 전공자들은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을 어느 정도

2) 이것은 가정학 분야에서 자신의 세부전공 이외의 교양과목 개설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나 필요하다고 보는지 알아본 결과(표 9), '필요하므로 꼭 배워야 한다'는 응답이 6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필요하지만 안배워도 된다'고 하여 남학생에게 가정과 교육은 필요하다는 인식에 79.8%가 공감하고 있었다. 학과별로는 가정교육과는 72.0%, 가정관리학과는 65.6%, 식품영양학과는 53.1%가 '필요하므로 꼭 배워야 한다'고 하여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타 과에 비해 남학생의 가정과 교육 이수 필요를 더욱 느끼고 있는 반면, '필요하지만 배우지 않아도 된다'에의 응답자도 세 과 중 가장 높게 나타나 다소 의외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3개과 중 유일하게 남학생이 포함 되어 있는 식품영양학과의 경우에서 '필요하므로 꼭 배워야 한다'에의 응답률이 가장 낮은 반면 '필요없지만 배우면 좋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 있어 남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9> 남학생의 가정과 교육이수 필요성 N(%)

구 분	가정관리 학과	식품영양 학과	가정교육 과	계
필요하므로 꼭 배워야 한다	42(65.6)	34(53.1)	54(72.0)	130(64.0)
필요하지만 안 배워도 된다	9(14.1)	9(14.1)	14(18.7)	32(15.8)
필요없지만 배우면 좋다	10(15.6)	13(20.3)	4(5.3)	27(13.3)
필요없으므로 안배워도된다	1( 1.6)	0(0.0)	0(0.0)	1( 0.5)
잘 모르겠다	2( 3.1)	8(12.5)	3(4.0)	13( 6.4)
계	64(100.0)	64(100.0)	75(100.0)	203(100.0)

다시 남학생에게 가정과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본 결과, '가정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61%로 가장 많았고,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가 16.3%로 나타나 교양 교육으로서의 가정학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가정학 관련 직종의 남자 비율 증가에 따른 필요성 인식'이라는 응답이 4.5%로 여전히 가정학은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가정과 교육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남학생에게 가정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로 '가정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점과 관련

하여 이번에는 가정학 전공자들로 하여금 가정과 교육의 성과로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인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표 10), '상당히 또는 많이 도움되는 편'에의 응답자 비율이 61.1%여서, 가정학 전공자들은 가정과 교육이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과별 차이가 인정되었는데, 가정관리학과 학생의 응답이 타 과 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편이었다.

<표 10> 가정과 교육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N(%)

구 분	가정관리 학과	식품영양 학과	가정교육 과	계
상당히 도움	8(12.5)	18(28.1)	17(22.7)	43(21.2)
많이 도움되는 편	22(34.4)	22(34.4)	37(49.3)	81(39.9)
약간 도움	32(50.0)	21(32.8)	19(25.3)	72(35.5)
거의 도움 안됨	2(3.1)	3(4.7)	2(2.7)	7(3.4)
계	64(100.0)	64(100.0)	75(100.0)	203(100.0)

$\chi^2 = 13.010^{**}$  df = 6 \*\* p<0.05

3) 대학에서 가정학 관련 교양 과목 개설

가정학 전공자들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서 가정학 관련 교양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59.6%가 개설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번에는 가정학 관련 교양 과목의 개설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표 11) 응답자 중 90.6%의 학생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여 가정학 관련 교양 과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대학에서 가정학 관련 교양 과목 개설 필요성 N(%)

구 분	가정관리 학과	식품영양 학과	가정교육 과	계
있어야 된다	58(90.6)	55(85.9)	71(94.7)	184(90.6)
없어도 상관없다	4(6.3)	3(4.7)	1(1.3)	8(3.9)
잘 모르겠다	2(3.1)	6(9.4)	3(4.0)	11(5.4)
계	64(100.0)	64(100.0)	75(100.0)	203(100.0)

$\chi^2 = 7.659^{NS}$  df=6 <sup>NS</sup> P>0.10

가정학 관련 교양 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표 12), '생활해 나가는데 유의한 내용이므로' 라는 의견이 7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관련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해'가 10.3%였다. 학과별로는 가정교육과의 경우에서 '관련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해'라는 응답 대신 '종합 과학적 성격의 학문이므로' 라는 응답이 다른 두 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학과 성격상 가정학 전반에 대해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과에 비해서 가정학이란 학문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된다.

<표 12> 가정학 관련 교양 과목 개설이 필요한 이유 N(%)

구 분	가정관리 학과	식품영양 학과	가정교육 과	계
흥미있는 과목이므로		1(1.8)	1(1.4)	2(1.1)
관련기초지 식을 쌓기 위해	7(12.1)	10(18.2)	2(2.8)	19(10.3)
생활해나가 는데 유의 한 내용이 므로	46(79.3)	40(72.7)	57(80.3)	143(77.7)
종합과학적 성격의 학 문이므로	4(6.9)	3(5.5)	11(15.5)	18(9.8)
기 타	1(1.7)	1(1.8)		2(1.1)
계	58(100.0)	55(100.0)	71(100.0)	184(100.0)

4) 가정학 관련 교양 과목 중 수강을 원하는 분야

가정학 전공자들에게 가정학 관련 교양 과목이 개설된다면 어느 분야를 가장 수강하기를 원하는가를 알아본 결과(표 13), 실내 디자인 27.1%, 의상 디자인 18.2%, 그리고 아동학이 15.3%로 나타나 흥미있는 분야와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과별로는 가정관리학과 학생들은 '의상 디자인'과 '아동학'이라고 하여 흥미 분야와 순위만 차이가 있을 뿐 일치하고 있으며, 식품영양학과 학생은 '실내 디자인'과 '의상 디자인'이라고하여 식품영양학을 가장 흥미있다고 한 응답과는 다른 결과를 보

였다. 가정교육과 학생의 경우에는 '실내 디자인'과 '아동학', '의상 디자인'의 수강을 원하고 있어 식품 조리학을 의상 디자인보다 흥미있다고 한 응답(표 8)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표 13> 가정학 관련 교양 과목 중 수강을 원하는 분야 N(%)

구 분	가정관 리학과	식품영 양학과	가정교육 과	계
식품영양학	6(9.4)	8(12.5)	3(4.0)	17(8.4)
식품조리학	3(4.7)	3(4.7)	5(6.7)	11(5.4)
아동학	14(21.9)	6(9.4)	11(14.7)	31(15.3)
가족관계학	2(3.1)	4(6.3)	8(10.7)	14(6.9)
가정관리학	1(1.6)	1(1.6)	3(4.0)	5(2.5)
소비자학	8(12.5)	0(0.0)	4(5.3)	12(5.9)
주거학	0(0.0)	2(3.1)	1(1.3)	3(1.5)
실내디자인	8(12.5)	22(34.4)	25(33.3)	55(27.1)
의상디자인	16(25.0)	10(15.6)	11(14.7)	37(18.2)
의류직물학	1(1.6)	0(0.0)	1(1.3)	2(1.0)
의복구성학	1(1.6)	1(1.6)	0(0.0)	2(1.0)
가정교육학	0(0.0)	4(6.3)	2(2.7)	6(3.0)
가정학원론	0(0.0)	0(0.0)	0(0.0)	0(0.0)
복식사	0(0.0)	0(0.0)	0(0.0)	0(0.0)
가정학전반	4(6.3)	3(4.7)	1(1.3)	8(3.9)
계	64(100.0)	64(100.0)	75(100.0)	203(100.0)

5. 가정학 전공자의 진로

가정학 전공자들의 졸업 후 진로로는 (표 14), '관련있는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48.3%, '전공과 관련없는 분야에 종사하겠다'가 26.6%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5.1%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과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14> 졸업 후 진로 방향

구 분	N(%)			
	가정관리 학과	식품영양 학과	가정교육 과	계
전공관련 직업선택	28(43.8)	39(60.9)	31(41.3)	98(48.3)
전공관련 없는 분야 종사	17(26.6)	11(17.2)	26(34.7)	54(26.6)
잘 모르겠다	19(29.7)	14(21.9)	18(24.0)	51(25.1)
계	64(100.0)	64(100.0)	75(100.0)	203(100.0)

$\chi^2 = 7.9490^{NS}$  df=4 <sup>NS</sup> P>0.10

여기서 만약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떤 분야에 종사하기를 원하는가에 라는 질문에서는 '교육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영양사', '디자이너'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분야들은 미미한 정도였는데, 연구원, 전공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업체 종사, 전공 관련 사업을 선호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여기서 '영양사'와 '디자이너'에의 선호는 가정학의 흥미 분야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흥미 분야와 직업 선택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교육자'는 흥미보다는 직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선택인 것으로 생각된다. 학과별로는 가정관리학과 학생은 '디자이너'와 '교육자'를, 식품영양학과 학생은 '영양사'와 '전공 관련 공무원'을, 그리고 가정교육과 학생은 학과 성격과 관련하여 '교육자'를 다른 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선호하였으며, 다음이 '디자이너'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가정학 전공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직업이 '교육자'인 점과 관련하여 가정교육과 뿐 아니라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등의 일반학과 졸업생들도 교직을 이수하면 임용 고사를 통해 중등 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현 제도 하에서 가정과 교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였다. 여기서 이용한 방법은 가정학의 각 세부 분야별로 임용 고사 기출 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뽑아 응답자로 하여금 맞는 답을 고르도록 하여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 결과(표 15), 가정관리학과는 4.9점, 식품영양학과는 5.0점, 가정교육과는 5.8점으로 평가 되어 가정교육과만이 전체 평균점수인 5.3점보

다 높았고, 다른 두 학과는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과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정과 교사양성이 목적인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타 과 학생들보다 가정과목 전반을 다루는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로서 가장 적합한 자질을 갖출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5> 가정과 교사로서의 가정학 전공자 평가 결과

구 분	Mean	SD	F값
가정관리학과	4.9	1.1	10.4910***
식품영양학과	5.0	1.4	
가정교육과	5.8	1.4	
계	5.3	1.4	

\*\*\* p<0.01

## 6. 가정학의 현재와 전망

### 1) 가정학의 현 위치

가정학의 현 위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한 결과(표 16)에서 보면, 대체로 '경시되고 있다'와 '학문으로서의 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44.3%와 42.9%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 결과는 학과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어 가정교육과에서는 '가정학이 경시되고 있다'는 응답이 60.0%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반면, 가정관리학과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가정학이 '학문으로서의 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가정학의 현 위치

구 분	N(%)			
	가정관리 학과	식품영양 학과	가정교육 과	계
경시되고 있다	25(39.1)	20(31.3)	45(60.0)	90(44.3)
학문으로 서의 제 위치확보	29(45.3)	30(46.9)	28(37.3)	87(42.9)
기 타	10(15.7)	14(21.9)	2(2.7)	26(16.5)
계	64(100.0)	64(100.0)	75(100.0)	203(100.0)

$\chi^2 = 21.5503^{***}$  df=4 <sup>\*\*\*</sup> p<0.01

2) 가정학 연구의 과제

가정학 연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표 17), 대체로 취업 가능 직종이 많은 식품영양학과에서 현재의 연구 범위보다 '좀 더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전공 관련 취업 가능성이 낮은 가정관리학과와 가정교육과는 취업 문제와 관련된 '산학 협동 연구가 활성화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공학과별 차이 검증 결과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 취업과 관련하여 가정학 연구 과제에 대한 인식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취업과 관련된 산학 협동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취업 문제 해결이 가정학 연구의 커다란 과제임을 시사해 주었다.

<표 17> 가정학 연구의 과제

구 분	가정관리 학과	식품영양 학과	가정교육 과	계
학제적연구 필요	9(14.1)	11(17.2)	6(8.0)	26(12.8)
취업관련 산학협동 연구필요	43(67.2)	10(15.6)	50(66.7)	103(50.7)
좀더 폭 넓은 연 구필요	10(15.6)	31(48.4)	13(17.3)	54(26.6)
기 타	2(3.2)	12(18.8)	6(8.0)	20(9.9)
계	64(100.0)	64(100.0)	75(100.0)	203(100.0)

$\chi^2 = 52.1736^{***}$  df=6 \*\*\* p<0.01

3) 가정학의 장래

가정학의 장래에 대한 질문에서는(표 18), '가정학의 비중과 역할이 증대되어 보다 많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될 것이다'(54.7%), '정보 기술을 적용하여 발전될 것이다'(20.2%)라는 응답을 하여 가정학 전공자들은 가정학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8> 가정학의 장래

구 분	가정관리 학과	식품영양 학과	가정교육 과	계
과학기술 에 밀려 퇴보	5(7.8)	2(3.1)	17(22.7)	24(11.8)
현재수준 계속 유지	6(9.4)	7(10.9)	5(6.7)	18(8.9)
정보기술 적용하여 발전	13(20.3)	14(21.9)	14(18.7)	41(20.2)
가정학의 비중과 역할증대 잘	38(59.4)	38(59.4)	35(46.7)	111(54.7)
모르겠다	2(3.1)	3(4.7)	4(5.3)	9(4.4)
계	64(100.0)	64(100.0)	75(100.0)	203(100.0)

$\chi^2 = 15.129^{NS}$  df=8 <sup>NS</sup> p>0.10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학 전공자들의 전공 관련 전반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여 가정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정학 전공자의 진로를 모색하고 가정학이 나아갈 방향 모색 시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1996년 9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충북 지역 소재 4년제 대학인 서원 대학교, 충북 대학교, 건국 대학교 충주 캠퍼스와 교원 대학교에서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와 가정교육과 3,4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03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자들은 가정학이란 '가정 생활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학문'이라는 대답을 한 경우가 45.3%였는데, 주위에서는 '단순히 가정 생활 기술만을 익히는 학문'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56.1%나 되었으며, 학과별 차이가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학에 대해 전공자들은 '전공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학문'이라고 한 응답이 50.2%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으나, 이 중 가정관리학과 학생의 경우가 타과에 비

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세째, 가정학 전공자 중에는 '성적에 맞춰' 전공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39.4%), 전공에의 만족도는 3.38점(5점 만점)이었으며, 흥미도 역시 3.4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가정학 전공자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면서 흥미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흥미롭다는 의견이 64.9%였는데, 대체로 실내 디자인, 식품영양, 아동 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학과별로 약간 다른 경향을 보였다.

네째, 남학생도 가정과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64.0%였으며, 특히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남학생의 가정과 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72.0%),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에서 가장 낮았으며(53.1%),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가정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에의 응답자가 60.9%로 가장 많았다. 가정과 교육의 생활에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또는 많이 도움된다'에의 응답자가 62.1%로 나타났는데, 이 중 가정관리학과 학생의 경우가 타 과생에 비해 부정적인 편이었다.

다섯째, 생활해 나가는데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77.7%) 대다수의 학생들(90.6%)이 가정학 관련 교양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강 희망 분야는 흥미있는 분야와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섯째, 가정학 전공자의 진로로는 '전공과 관련있는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인 직종으로는 '교육자', '영양사', '디자이너'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가정학의 현 위치는 '경시'와 '제위치 확보'에의 응답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취업과 관련된 산학 협동 연구(50.7%)'이며, 가정학은 앞으로 '비중과 역할이 증대되어 보다 많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될 것(54.7%)'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학 전공자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 만족하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공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정학의 학문으로서의 위

치 정립과 올바른 인식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그를 위하여 가정과목이 중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전인 교육의 형태로 확대 실시됨으로써 가정학과 가정 과목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서 대학에는 가정학 관련 교양 과목의 확대 실시로 비전공자에게도 가정학을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생활 전반을 다루는 실용 학문으로서의 가정학의 성격에 부합되는 역할이 기대된다고 본다.

세째, 가정학 연구의 과제로 '취업 관련 산학 협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나타난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정학과 직업 교육은 분리할 수 없는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학 관련 학과에서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 양성과 병행해서 가정학 관련 직종을 개발함으로써 가정학 전공자들 스스로 적극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네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요청에 부응하여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학문 분야로서의 위치를 굳게 하기 위한 가정학 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응용 과학으로서의 위치 확립을 위한 학제적인 연구와 실용 학문으로서의 위치 정립을 위한 산학 협동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이는 곧 가정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탐색적 시도라는 연구의 성격상 연구자의 관심 사항 중심으로 연구내용이 구성되어 좀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과 대상지역이 충북 지역으로 국한되어 전체 가정학 전공 대학생의 경우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럼에도 관련 선행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이 문제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실증 자료로 제시하고자 했던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연구 결과는 앞으로의 가정과 교육과 가정학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향 설정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아울러 연구자

는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사항을 중심으로 가정학 전공자의 졸업 후 실제 직업과 전공과의 관련성, 그리고 가정학에 대한 인식 변화도를 다루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직업 교육으로서의 가정학이 담당할 구체적인 역할 및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 인숙 외(1996). 가정 교과목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의견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5(1), 99-111.
- 2) 문 영보(1981). 가정 교과에 대한 교사 및 학생의 인식과 학습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3) 매일 경제 신문(1996). 11. 22일자.
- 4) 박 승란(1990). 가정 생활의 변화에 따른 가정학 연구방법. 이리: 원광 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5) 이 수정 · 현 온강(1994). 여고생의 진로 성숙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 6(1), 1-15.
- 6) 유 영주·이 정연(1994). 가정학 원론. 서울: 신광 출판사.
- 7) 이 기춘 외(1990). 21세기 가정학의 발전적 과제. 대한 가정학회 제 49차 총회 및 추계 학술 대회자료. 47-63.
- 8) 이 인희·이 옥임(1977). 가정과 교수법. 서울: 수학사.
- 9) 이 정연(1994). 가정학의 메타이론: 인간 생태학적 접근의 타당성. 대한 가정학회지. 32(3), 1-9.
- 10) 이 정연(1995). 한국의 가정학: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대한 가정학회지. 33(4), 1-9.
- 11) 이 춘계(1990). 사회 변천에 따른 가정과 교육학의 교육 영역. 대한 가정학회 제 43차 총회 및 추계 학술 대회 자료. 51-55.
- 12) 이 태현(1979). 가정학 원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13) 장 명옥(1993). 가정학 원론. 서울: 교문사.
- 14) 장 명희·윤 인경(1995). 고등학교 가정계 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과교육학회지. 7(1), 107-120.
- 15) 장 창옥(1982). 가정학 원론. 서울: 수학사.
- 16) 정 영숙 외(1994). 가정학 계열 대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17) 조 복희(1991). 가정학 연구방법론. 서울: 교문사.
- 18) 조선 일보(1997). 1월 28일자.
- 19) 현 기순(1975). 가정과 교육. 한국 능력 개발사.